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**보험업계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 시작**

- 환경부·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·국내 주요 보험회사는 그린스타트 운동(녹색보험 문화) 및 녹색 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식을 지난 14일 동부금융센터에서 개최함.
  - 체결식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으며, 정부와 업계가 협력 MOU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.
  - 그린스타트 운동은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캠페인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, 현재 37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네트워크와 206개 지자체의 지역네트워크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.
  
- 국내 보험회사 중에서는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며, 이번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그린스타트 환경기금을 조성, 우수 보험설계사를 통한 그린리더 활동, 동부프로미농구단과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예정임.
  - 전자·증권청약서를 사용하는 신상품 판매 후 종이 절감을 통해 절약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회사는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그린스타트 사무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함.
  - 우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선도자인 그린리더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그린스타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험 판매 시 고객대상 그린스타트 및 녹색생활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임.
  - 또한 동부 프로미 농구단을 활용해 온실가스 줄이기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, ‘1사 1녹색 운동’을 지정·추진하여 전직원이 동참하는 녹색생활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.
  
-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는 이번 그린스타트 협력 MOU를 통해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에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고,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 깊숙이 그린스타트 운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(그린스타트 운동과 함께하는 녹색보험,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, 1/14)